

섬 (島)

봄날에 온종일 비가 내린다. 수양버들 잎줄기처럼 봄비가 물결치며 내린다. 오늘은 올 사람도, 마땅히 갈 곳도 없다. 저 흐르는 비 속에서 뿌우연 <섬> 하나가 떠 있다. 마치 오랜 세월 나를 지켜본듯, 자태가 애잔하다. 어쩌면 사람마다 자기만의 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떠 있는 섬 말이다. 섬은 고독이다. 섬은 혼자됨이다. 섬은 혼자서 머리칼 흘날리며 내려 앉는 달빛을 본다. 섬은 혼자서 하얀 이빨을 드리내며 달려드는 파도를 본다. 섬은 혼자서 그리움에 이는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섬은 혼자서 천년의 한이 부서지는 파도의 소리를 듣는다. 섬은 그 자리에 그렇게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언제나 외지인이고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섬은 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래서 섬은 기다림이다. 아픔이다. 그리움이다. 정현종의 단 두줄의 시 <섬>에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한 것 처럼 언젠가 나도 나의 섬에 가고 싶다. 그 섬에 가면 수만 세월동안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 있을 것만 같다. 그 섬에 가면 어머니의 숨결처럼 나를 편히 쉬게 할 것만 같다. 그 섬에 가면 모든 근심, 걱정 모두 내려 놓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고려가요에 작가 미상인 <청산별곡>이 있다. “살으리. 살으리라. 청산에 살으리라. /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으리라. // 울어라 울어라 새야 /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 자고 일어나 울고 있다. // (중략)// 이력저력 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떡하나 // 살으리 살으리라. 바다에 살으리라. / 나문재와 굴, 조개 먹고 바다에 살으리라//~~ 나도 정말 그 섬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지금은 손발이 묶여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학창시절에는 방학이 시작되면 전국 방방곡곡 혼자서 여행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 시절에는 해외 여행이 금지된 시절이었으니 배낭 하나만 올려 메면 전국 아무 곳이나 가는 배낭족이었다. 여행은 마치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 같다.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동기도 함께 배낭메고 여행을 다니면서다. 그 시절만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행복하다. 내가 가 본 여러 섬들 중에 두개의 섬이 기억난다. 그 중 하나는 국내의 <홍도>라는 섬이다. 나는 여행을 다닐 때 목적지를 정해 놓고 다니지 않는다. 여행 기간과 경비만 정해져 있을 뿐이다. 남해안 뱃길을 따라 이 섬, 저섬을 다니다가 목포에 도착했다. 거기서 다른 일행을 만났는데 홍도를 이삼일 다녀올려고 하니 같이 가자고 한다. 정해진 곳이 없으니 따라나섰다. 그 당시 홍도는 개발이 미처 되지 않았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홍도는 야영을 할 곳이 없어서 어느 늪은 (5,60 대로 짐작함) 해녀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3일 뒤에 일행은 떠나고 나는 그곳에 혼자 남았다. 마지막날 밤 나는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늪은 해녀가 자기 집에 계속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있으라고 한다. 그렇게 일주일을 공짜밥 먹고 살았다. 홍도는 작은 섬과 섬들이 이어진다. 낮에는 해녀와 함께 쪽배 타고 바다에 나가 잠수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바다를보며 그냥 그렇게 살았다. 밤에는 별 보고 달 보며 장작타는 불꽃보며 그녀의 살아온 이야기 들으며 그냥 그렇게 살았다. 나는 이제 그녀의 나이가 되었다. 나도 이제는 그녀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생긴 모습 그대로, 하는 일 그대로, 함께 사는 사람 그대로, 별로 특별할 것도 없이, 잘난 것도 없이, 들고 남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고 싶다.

일본의 후지와라 산야가 쓴 <돌아보면 언제나 네가 있었다>라는 책이 있다. 총 14 편의 단편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야기한 책이다. 나는 그 책에서 <도시 속의 섬>을 발견한다. 현대의 도시인들은 거대한 도시 속에서 모두가 바쁘게 살지만 <생태통로>가 있다는 것이다. 항상 정해진 시간과 다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긴 세월동안 항상 몇시에 일어나서 몇시 몇분에 몇번 지하철, 몇번째 칸에 타고, 항상 정해진 좌석에 앉아서 정해진 풍경만 바라보다가, 정해진 출구에서 나와 정해진 방향으로만 걸어 출근한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8년간을 항상 바다가 보이는 지하철 창가에 앉아서 출퇴근을 한다. 바다는 언제 보아도 매번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의 아내를 무척 사랑했지만, 그의 아내는 고부갈등으로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다. 백방으로 찾으려 다녔지만 아내를 찾지 못했다. 어느날 전철 사고로 앉을 자리가 없어 바다 쪽이 아닌 육지 쪽 창가에 서서 가게 된다. 육지쪽 창가는 처음이다. 열차가 어느 주택가를 지나게 되는데 그 창가에서 그의 아내와 남편으로

*본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씨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보이는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다. 세상이 아무리 넓고 많은 사람이 살아도 우리가 접하는 생활반경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다. 자신의 <섬>에 가 보지도 않고 평생을 사는지도 모른다. 그 <섬>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 비록 그 <섬>에 가면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섬>은 우리 마음 속에 있고, 그 <섬>은 우리 삶 자체일지도 모른다. 후지와라 산야는 “슬픔 또한 풍요로움이다”라고 말한다. 인간의 일생이 무수한 슬픔과 고통으로 채색되면서도, 바로 그 슬픔과 고통에 의해서만 구원받고 위로받는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가끔은 나만의 <섬>으로 가고 싶다.